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7월 1일 (목) 제 807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청년 주일
설 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시편119:9>



홍 옹 표 목사 (기타가미벨엘전도소)

얼마전 국회의원을 한번도 하지 않은 30대 청년이 야당 당대표가 되었다는 뉴스가 한국을 떠들석하게 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30대의 젊은 예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선생이라 불리었다.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에 형식과 외관에서 내용과 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든 형태의 제사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5:17, 새번역)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일들을 거침없이 했다. 안식일에 일했으며 가난한 자와 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또한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

암흑기와 같았던 중세에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조르다노 부르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를 종교재판에서 달구어진 쇠말뚝을 박아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를 붙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왜 그럴까?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 과학적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그 죄목으로는 죽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안되는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생물이 시간과 환경에 의해 변하면 안되는가?”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경이롭지 않은가?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형식과 고착화된 의식에 갇혀 교회의 진실된 내용을 잃어버린 것 같다. 길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딤후3:5, 새번역)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예수의 가르침으로 살아도 쉽지 않은 것이 신앙의 길인데 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허영과 욕심을 찾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젊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신앙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다니엘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야.” (다니엘2:20, 새번역)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찾을 수 있을 뿐 완전하지 않다. 완전함은 오직 주님에게만 존재한다. 예수는 자신에게 선

하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 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마가10:18, 새번역)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다음을 강요해 왔다.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학생다워야 한다’ ‘어른다워야 한다’ 등 수많은 ‘다음’은 마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정말 ‘다음’ 이 그렇게 정의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청년주일을 즈음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다음’ 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하나님도 규정하지 않은 모습을 인간인 우리가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다. 정형화된 생각에 틀에 맞추려는 생각이 마치 내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교회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를 마치 자신이 맺어야 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에 의해 열매맺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15:5, 새번역) 그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다. 예수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하나님안에 머무르라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성서를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목적이 아니고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된다. 마치 어릴적에는 모르던 부모의 사랑을 나이가 들고 부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과 같다. 깨달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살지를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전도서11:9, 새번역)

주님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려는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소망한다.

청년주일 특집

청년회 전국 협의회에서의 보고

1. 전반기 · 2020년도 전협의 깃발을 높이며(2020.9.2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방에서 약 반년이 지난 작년 9월말에 열린 청년회 전국 협의회(전협) 총회는, 주의 인도로 총 6명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제한 속에서 가졌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 관계가 희박 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를 목표로 세우며, 올해의 활동을 결정했다. 계속해서 임원간에 여러 차례에 열린 온라인 회의를 통해 ‘비접촉 행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다방면의 행사를 시작했다.

비대면 행사를 차지하는 큰 부분 중 하나는 SNS에서의 온라인 행사였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잡지 ‘INHERITANCE(인헤리탄스)’의 발행, 또한 전협의 봉사는 우리의 발신하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장기간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인터뷰 등을 통해 봉사 대상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청년들과의 교류도 가지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상의 교류를 바탕으로 청년들 중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불

같이 타오르는 신앙 계승을 얻은 형제 자매들도 있었다. 2020년도 전협의 전반기는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처음 가졌던 목표 이상의 봉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경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2. 후반기 · 활발한 기반 형성에 성공한 전협(2021.4~)

이상과 같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접촉이 위험한 가운데 전협 임원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모인 제1차 임원회 장소(2020년11월)를 흔쾌히 제공 해주신 토요하시교회(정수환목사)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 전협의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협 임원들은 더 합심하여 주님을 따르며, 계속해서 섬겨나가려 한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생각하고 있다. 목사님과의 인터뷰 등, 임원간의 모임(전체 협회 회 모습, 또는 기도 모습의 촬영 등), 그리고 보다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수양회를 열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 확대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젊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전협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총무:아나기마치 사토시, 요코하마교회)

전협 OB들의 서신

※8월호에도 계속 올립니다

잊을 수 없는 청년회 전협에 관한 추억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김성제

하나



1973년 8월, 두 번째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실의에 빠져 도쿄에 돌아온 나를 선배 청년 KG(후에 장로가 됨)가 잡지 기자의 취재 인터뷰에 데리고 다녔다. KG는 그 해 8월에 도쿄에서 납치된 김대중씨의 보디 가드였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닫혀진 나의 세계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민주화 투쟁을 만나면서 크게 넓어졌다.

그 해 12월에 동경교회에서 가진 성탄절 연합예배 후의 웅변 대회에서, 내가 준비한 <신앙과 민족의 해방>이라는 원고를 어느 유학생이 한국어로 번역해주었던 것을 통채로 외워서 발표했다. 커다란 박수갈채를 받으며 우승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全協이 한국의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銀座數寄屋橋公園)을 결행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회 장소는 신도들의 아우와 호통으로 가득했다. 오운태목사님이 무서운 얼굴로 야단을 치셨다. 교회에서 파문당한 기분이었다. 공원에서 숙박할 텐트를 다 설치한 그날 저녁에 오목사님이 현장에 오셨다. ‘당장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마른 침을 삼키며 각오하고 있었다. 오목사님은 청년들의 머리에 가볍게 꿈뻑을 주시더니, 다음 순간 두 팔로 청년들을 감싸주시듯이 기도해 주셨다. 그 때에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둘

제일대한국독교회 선교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에 청년회 전국협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청년들은 이 기념식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청년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해야 하네!” 그렇게 실행위원장이 위압적으로 충고하셨다. 당시 신학생이던 나는 직장생활에 지친 교회 청년들을 설득하면서 반복해서 연극 연습을 거듭했다. 드디어 기념식전 당일이었다. 1부 프로그램 시간이 초과되며 청년회전국협의회 연극의 취소가 결정되었다. 넓은 대회 장소에서 사람들이 리셉션장으로 이동해버리며 청년들만 남겨졌다. 우리를 동정한 아주 적은 사람들 앞에서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눈물을 글썽이며 쏟아냈다. 그 후의 총회 석상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교회 청년들을 무시하십시오!”라며 총회를 비판했다. 총대들은 아무도 반론하지 못한 채 잠

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실행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하셨다.

셋

나는 이와 같이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입장이 바뀌어 청년 육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목사가 되는 길로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회상한다.

전협에서 새로운 교회생활

오사카교회 김수남



제일대한국독교회는 1968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 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선교 과제로 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동안 거론되었던 제일동포 2세로부터 비판 받았던 1세 지도자와 교회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

다.

그와 같은 시기에 전협 대표위원의 리콜 운동이 있었고, 그런 혼란의 시기 가운데 전협 동지로부터 부름 받아 한 때 멀어졌던 청년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런 도중, 열렬함에 대표위원을 맡게 되었지만 그다지 자신은 없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고민하면서 제일코리안으로써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인도 아니고 군사 독재정권하의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으며 일본에서는 조선인은, 조선 부락에나 돌아가라고 차별받고 배척 받던 존재, 역사적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어를 비롯한 이에 따른 문화는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뇌리에 새겨진채, “왜 하필 조선인으로 낳았냐고!” 부모를 원망하던 상태에서 있는 그 대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에 합당한 세월과 과정이 필요했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연간 주제를 선정할 때 교회 전체 과제인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향하여> 라고 하는 슬로건에 임하게 되었다. 제일대한국독교회는 청년회, 여성회 등의 자립적 활동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회학교가 실시되는 의미와 의의를 되짚어 보며 내 스스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 존재의 부정 보다는 누구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느낄 수 있는 인격형성의 장으로써 또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1971년에 세례 받고 청년회 활동에 가담하고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며 능동적 자세로 교회형성에 참여하도록 힘쓰고 있다.

전협 OB들의 서신 ※8월호에도 계속 올립니다

모든 것은 全協으로부터 시작했다

나고야교회 이정자



제 全協 생활은 89년에 시작합니다. 당시의 全協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이나 입국관리법 폐지를 요구하는, 차별과 싸우는 활동이었고, 또 하나는 수련회 같은 '같이 모여서 즐기자' 는 활동이었습니다. 주제에는 '십자가' 나 '해방'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신앙과 '재일'

의 주체성이 주된 축이었습니다. 또 중앙위원회는 지역에서 민족교육 활동을 하는 선배가 있어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 자신도 全協 활동에 대해 '신앙이 중요하나, 민족 문제가 중요하나' 고 문제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는 RAIK의 佐藤信行선생님이나 이청일목사님으로부터 KCCJ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나 荒井獻선생님 같은 고명한 신학자를 통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후배들이 중심이 되면서 平良修목사님이나 堀江有里목사님을 모셔서 '재일' 이라는 틀을 넘어 보려는 도전도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꽃은 주제 강연과 全協 발제인데, 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동그랗게 앉아 자기소개를 하는 교류회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선배들은 우리말로 노래를 했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선배로 손을 꼽자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松田聖子の「渚のバルコニー」를 우리말로 부르는 선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全協을 통해 '광주' 를 알고 조선학교라는 '우리학교' 를 알고 일본사회의 숨겨진 역사를 알고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BTQ나 일본군 '위안부' ,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全協 덕분에 새 문이 열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일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왔던 全協 선배, 친구, 후배들이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때 全協은 국적, 자라온 배경, 영주권 종류 등, 많은 차이가 있어도 '한반도에 뿌리가 있는 기독교청년들' 의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래서 지금 더 다양해진 KCCJ의 가능성을 꿈꿔 봅니다.

신앙도 전협 동지들과 함께 단련

오사카교회 김성원



내가 청년회전국협의회(이하,전협) 활동에 참여했던 1970년대는 재일 동포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였고,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도 군사 독재 정권의 가혹한 인권 억압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전협에 모이는 동료들은 민족 차별로 인하여 진학이

나 취직 등에 벽이 가로막혀 자기 실현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인권 상황은 학생과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행동하였던 기독교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으로, 소위 구원을 받고, 교회는 청년을 포함한 신도에게 구원의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목적이 되고, 교회가 사회와 재일동포의 현실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라는 물음이었다.

당시 우리가 전협의 표어 등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었다. 재일동포 청년이 강제 퇴거라는 이름으로 국외로 추방될 것 같은 문제, 납세 등과 같은 의무는 부과되어 있으면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문제 등에 대한 대처,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구속된 그리스도인, 민주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 등, 작은 힘이었지만 이러한 과제에 마주하여 왔다.

곧 70세가 되려고 하는 지금 회상해보면 상당히 엉뚱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 시절에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서 나의 신앙도 전협 동료들과 함께 다져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전협

교토교회 윤일현



나의 전협 활동은 1979년 고교생 수양회(野尻湖 레이크하우스)에 참가하여 관서지방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선배 청년들이 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고교생들에게도 청년회 협의회의 권유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선배들의 인도로 1980년대에 들어가서 1995년까지 참여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본국에서는 민주화 운동,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을 비롯한 권리 보장과 사회 운동, 법적지위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걸려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협 청년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 청년들이 복선선교(전도)하는 것을 놔두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라는 선택과 갈등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二世·三世 재일동포로서 아이덴티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은 교회에 모여 청년들과의 만남을 희구하였던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동포 친구들이 교회 청년회에는 있었고, 자신의 방향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在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당시 관서지방회가 서부지방회와 분립하던 시기였는데, 우리는 전국 선서 카라반을 기획하고 서부지방회 청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또한 전협 활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 수양회>의 목표를 내걸고 1명이라도 더 많은 교회 청년들이 연결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120명이 넘는 인원이 하기 수양회에 모였습니다.

KCCJ에는 <먼려 청년회>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짚어지고 이어나갈 주역은 청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전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Let us serve the Lord with joy and Fun to meet together.

끝으로 당시 전협의 모습을 ZENKYO LOVE—WEB 사이트에 서 살펴 볼수 있습니다. <http://hwm6.wh.qit.ne.jp/smiley/milem6/>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KCCJ

UCCJ와 선교협력위원회 2년만에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2020년도에는 가지지 못했던 일본그리스도교단(이하UCCJ)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KCCJ)의 선교협력위원회가 올해에는 제53회로서 지난 6월 15일(화) Zoom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양 교단의 선교과제에 대하여 -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진 금번 위원회에는 UCCJ에서 10명이, KCCJ에서 1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각 교단의 참가자 소개와 보고가 있는 후, 주제에 따라서 발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KCCJ에서는 허백기목사(교토남부교회)가 〈KCCJ의 코로나 대책, 과제 등 ~교회의 5대 요소와 관련하여〉라는 테마를 가지고 ①코로나가 예배에 끼친 영향, ②코로나가 친교에 끼친 영향, ③코로나가 말씀 선포에 끼친 영향, ④코로나가 봉사에 끼친 영향, ⑤코로나의 체험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소화시키고

증언할 것인가? 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UCCJ에서는 수노하라 요시미즈(春原禎光, 柏教会)목사가 〈코로나 재난에서 교회 네트·SNS 이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①예배,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 참석, ②교제, 교육에 SNS 이용의 사례, ③전도, 교회도 SNS를 해야 하는 시대, ④금후의 과제 등에 대하여 발제한 후에 질의 응답을 가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도전해 오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2021년도 <평화메시지>의 초안에 대하여 협의, 채택하고 각 교단의 8월 기관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서부지방회

제37회 정기 총회 개최 신 회장에 양영우 목사를 선출



서부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가 2021년5월30일,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열려(진행장소: 武庫川교회) 총대 33명 중, 29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에는 회장 이중재목사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인가?〉(벧전4:7-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이성우명예

목사가 축도하였다.

주요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장로증선 승인 : 武庫川교회, 広島교회
- (2)무목교회 임시당회장 선임 : 新居浜그레이크스(나카에오이치목사), 福山(이상덕목사), 西宮, 水島(윤종헌목사), 姫路, 姫路薬水(한세일목사),
- (3)姫路교회 임시목사 김영주목사의 선교지원금 승인
- (4)서부지방회 규칙 개정의 건을 승인
·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온라인 개최에 관한 것과 정기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때에 임시 조치에 관한 지방회 규칙 개정의 건.
- (5)서부지방회 운영 내규의 정정, 수정 및 추가의 건을 승인
- (6)2021년도 예산안 : 10,083,502円(전년도 이월금6,112,102円 포함)
- (7)임원 개선

회장 : 영영우목사(武庫川), 부회장 : 한승철목사(神戸東部), 임영재장로(武庫川), 서기 : 한세일목사(神戸), 부서기 : 이상덕목사(三次), 회계:백승호장로(神戸), 부회계: 양창희장로(武庫川), 전도부장 : 이중재목사(川西), 교육부장 : 나카에오이치

목사(広島), 사회부장 : 윤종헌목사(明石), 신도부장 : 최형철목사(岡山), 고시부장 : 한세일목사(神戸), 시찰부장 : 양영우목사(武庫川), 선교협력부장: 양영우목사(武庫川), 교역자회장: 이상덕목사(三次) (보고: 한세일목사)

서남지방회

제71회 정기 총회 개최 신 회장에 김성호 목사를 선출



제71회 서남지방회 정기총회는 2021년4월 29일, 후쿠오카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하여 임직원회에서 변경을 결정했다.

(1)각종 보고 및 현의안 사항의 승인은 서면으로 승인의 가부를 결정한다.

(2)임원 선거는 우편으로 투표하여 선임하기로 하다.

선거 개표는 5월16일, 6월13일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회장 : 김성호목사(熊本), 부회장 : 신치선목사(福岡中央), 고문국장로(別府), 서기 : 윤선박목사(博多), 회계 : 최윤성장로(福岡)가 선출되었다.

각 부장에는 전도부장 : 김인과목사(福岡), 교육부장 : 주문홍목사(小倉), 사회부장:곽용길목사(沖繩), 청년부장:조현규목사(別府), 여성부장 : 이혜란목사(地方会), 선교협력부장 : 김성연목사(下関), 시찰부장 : 박영철목사(対馬恩恵), 고시부장 : 김성효목사(熊本), 재정부장 : 최윤성장로(福岡), 회계감사 : 박재덕장로(沖繩), 김정명장로(宇部)가 선임되었다.

현의안은 ①후쿠오카교회 장로 증선 2명 허락, ②제71회기 서남지방회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보고 : 윤선박목사)

을 보게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선교활동과 지분날인 거부 운동 등을 함께 나누었던 세대, 테니스 등을 하면서 사랑받고 자란 세대, 그리고 직접 활동한 기회가 없었던 나와 같은 세대에도 맥인도목사는 경애해 마지 않는 큰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위인으로 칭송을 하는 것 만으로는 고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가서 너희도 똑 같이 하라〉 고 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뒷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 : 박영자목사)

맥킨토시목사 선교 기념집회 개최 추도 20주년, 지금 기억나는 맥킨토시목사

맥인도(麦仁道, John McIntosh) 목사 소천 20주년을 기억하여 지난 6월18일(토), ZOOM을 통한 온라인 기념집회가 개최되었다.

KCC, 서남KCC, RAIK, 전국 여성회가 힘을 모았는데, KCCJ가 주최하는 온라인 집회로서는 130여명이 참가하여 최대 규모였다.

김필순목사의 사회와 데이빗 맥킨토시씨가 통시 통역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각지, 한국, 캐나다에서의 참가자가 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내용은, 생애를 정리한 영상, 그랜 데이빗목사의 메시지, 연고가 깊은 8명의 코멘트, 4명의 자녀들의 코멘트 등 추억을 더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베스(Beth McIntosh) 사모님의 건강한 모습

